

尹 파면까지... 광주·서울 등 주말 '탄핵 집회' 계속된다

‘광주 비상행동’ 내일 오후 4시 제7차 시민총궐기대회 개최
5·18광장서 릴스 경연대회도 전국 대도시에서도 궐기대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광주·전남 5개(광주·광주남·전남·전남서·목포) 노회가 19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 양림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오는 21일 광주 동구 금남로와 서울 국회 앞 등 전국 곳곳에서 현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대국민 집회가 열린다. 지난 14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 후에 진행되는 첫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다.

〈관련기사 2·3·4·5·6면〉

특히 ‘12·3 내란’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계엄군 간부들의 증언을 통해 내란 음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내란이 아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다’면서 버티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 17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 비상행동)’은 오는 21일 오후 4시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제7차 광주시민총궐기를 진행한다.

광주 비상행동은 19일 성명을 통해 “6인의 헌법재판관 중 1명만 반대해도 탄핵된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복귀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국민이 파면 광장으로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광주 비상행동은 K-POP 등 신나는 음악을 활용하는 동시에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시민총궐기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 집회를 이어가는 만큼 많은 지역민들이

지지 않고 광장에 모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광주 비상행동은 ‘릴스 경연대회’도 진행한다. 20일까지 윤석열 파면과 국민의힘 해체를 주제로 개성있는 릴스를 제작해 제출하면, 21일 광주시민총궐기에서 상영해 집회 참여자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전국 대도시에서도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궐기대회가 열리며 이번 주말을 고비로 현재에 대한 탄핵 압박 열기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 정황도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계엄 당시 투입된 군 병력만 1500여명이 넘고, 각종 화기로 무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개인별로 지급되진 않았지만 당시 계엄군이 쟁전 살탄만 1만발 이상으로 추정되는 등 당시 계엄에 투입됐던 군 병력과 무장 수준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2면으로 계속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한덕수,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정부가 그동안 반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법 외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중언감정법 개정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국회로 되돌아가는 6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반대 입장을 고

수해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구조를 고착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서

는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농가 소득 안정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 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국가가 재해 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고, 국회중언감정법 개정안과 관해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조회수 2000만 돌파



광주일보 유튜브 채널이 호남 지역 신문사 중 최초로 누적 조회수 2000만회를 돌파하며 지역 언론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2017년 1월 11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광주일보는 지난해 9월 누적 조회수 1000만을 기록한 데 이어 1년 3개월 만인 지난 14일 누적 조회수 2000만을 달성했다.

지역 밀착형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광주일보 유튜브 채널은 스포츠, 사회, 정치, 문화 등에서 다양한 시각을 선보이며 지역 언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광주일보가 제공하는 KIA 타이거즈와 광주FC 영상은 단순한 인터뷰를 넘어 선수들의 인간적인 면모와 훈련 현장 등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백하게 풀어내면서, 스포츠팬들에게 재미를 주고, 깊은 공감까지 얻고 있다.

광주일보의 무대는 국내에만 그치지 않는다. 매년 KIA와 광주 해외 전지훈련을 담아왔던 광주일보는 올해에도 호주 캔버라, 일본 오기나와, 태국 치앙마이를 찾아 새 시즌을 준비하는 선수단의 모습을 생생히 전달했다. KIA의 우승 여정도 광주일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광주일보는 지역의 사건 사고 현장, 그리고 다양한 정치·문화계 인사들의 목소리 또한 담아냈다.

광주일보 콘텐츠의 또 다른 강점은 대학생 기자단의 활약이다. 이들이 직접 촬영하고 제작해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과 열정이 더해진 영상은 기존 언론 콘텐츠와 차별화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광주일보 유튜브 채널은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이슈 또한 발 빠르게 다뤄내며 폭넓은 시청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12·3 내란사태’로 긴박하게 돌아갔던 국회의 밤을 시작으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집회 현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순간 등을 영상에 담아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진행된 탄핵집회 현장을 찾아 선보인 대구·경북 시민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영상도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2000만회를 돌파한 광주일보는 최근 영상 PD직을 신설하고 공개 채용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뉴미디어 매체로 역할을 굳건히 할 방침이다. 또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로 지역 사회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동시에, 전국과 글로벌 이슈를 다루며 뉴미디어 시대에 지역 언론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호남 신문사 최초 기록
지역 밀착형 콘텐츠
정치·사회·문화·인물
다양한 목소리 전달

KIA 타이거즈와
광주 FC 선수들
인터뷰·훈련 현장 등
비하인드 스토리 인기



광주일보 유튜브 QR 코드

복스 - '향료' 'OTT 트렌드 2025' ▶14·15면

'미생' 윤태호 작가, 보성에서 한 달 살기 ▶16면

KIA 타이거즈 '소방수' 조상우 영입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전라남도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울타리 전라남도

2025년 1월부터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1세(12개월)부터 18세까지 월 최대 20만원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1세가 되는 생일달에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정부24 접수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내용
'24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생후 12개월이 된 아동	출생아동과 부모 모두가 함께 전남에 거주	도 수당 10만 원 시군 수당 10만 원 *시군 형편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